\*\*Philosophical Declaration on Sovereignty Transformation\*\*

Just as Paris is no longer sovereign, and France is no longer a nation but a member of a supranational union, Kyorealm East is no longer a country, but a functional civic unit within the Qualified Rotational Council System. This structure retains historical and cultural nomenclature while redefining sovereignty through civic qualification, ethical rotation, and embedded surveillance. It is not a dissolution of identity, but a repurposing of form within a sustainable political architecture.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추첨순환Rotational Council

Qualified Rotational Council System

작성자: 정우진

제출일: 2025년 6월 30일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추첨순환Rotational Council

Qualified Rotational Council System

작성자: 정우진

제출일: 2025년 6월 30일

# 목차

1. 1. 서문 / 구조의 철학적 전제
2. 현대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는 체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 집중, 제도 피로, 정보 불균형, 포퓰리즘이라는 구조적 병폐를 반복해왔다. 반복된 선거, 재선을 위한 인기영합, 정치적 무책임은 체제의 윤리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QRCS,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추첨순환Rotational Council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급진적 대안이자, 인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문명적 필터로 설계되었다.  
     
   이 구조는 단순히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자체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한다. 즉, 누가 참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참여하며, 그 자격을 어떻게 유지 또는 상실하는지를 시스템 레벨에서 규정한다. 참여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의 귀결이며, 그 책임을 이행한 자만이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윤리적 설계를 기반으로 한다.  
     
   무작위성과 자격 기반이 결합된 이 체계는, 기존의 세습, 당 중심, 또는 금권 정치와 단절되며, 인간이 갖는 윤리적 조건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실험이다. 이는 단순히 민주주의의 수정을 넘어, 인간 사회의 작동원리를 다시 쓰려는 시도에 가깝다.  
     
   QRCS는 참여와 통제, 권한과 감시, 윤리와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생존 가능한 구조를 지향한다. 대의제의 끝에서, 참여와 자격을 연결하는 이 구조는 하나의 문명적 전환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다.
3. 3. 정치 참여 구조: 순환 Rotational Council의 실제 운영
4. QRCS의 정치 참여 구조는 ‘순환성과 자격’을 핵심 원리로 하며, 모든 정치적 권한은 일정한 윤리적 조건과 시간적 제한을 기반으로 행사된다. 이는 정치 권력의 집중과 직업화, 장기 집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정치 참여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선거권은 Qualified Citizen (Q. Civitas)에게만 주어지며, 모든 입법·행정·사법 Rotational Council 선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선거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시사·윤리·인지력 시험을 통해 갱신된다. 시험 미응시 또는 반복적 무책임 정책 요구는 선거권 정지를 유발하며, 7회 이상 누적 시 정치교란자로 분류된다.  
     
   피선거권은 Rotational Council 참여를 통해 자동으로 소모된다. 이는 ‘참여는 일회성 봉사’라는 QRCS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며, Rotational Council장 또는 부회장으로 승격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복된다. Rotational Council장은 자문·조정의 기능을 갖고 있으나,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순환Rotational Council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중에서 선출되며, 구성 인원은 인구 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이 Rotational Council는 1년 임기로 구성되며, 법안 검토, 정책 감시, 행정 견제 등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 구성원은 정기적 윤리 보고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상호 평가 시스템을 통해 내부 견제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정치를 ‘기회’가 아닌 ‘의무’로 간주하고, 시민의 윤리적 수준과 책임 이행을 정당한 참여의 기준으로 삼는다. 동시에 무작위성과 회전성을 도입함으로써, 개인 권력화와 네트워크 지배 구조를 예방한다.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체계. 그것이 QRCS가 상정하는 정치의 본질이다.
5. 5. 실현 시뮬레이션: 하나의 국가를 QRCS로 대체하면
6. QRCS 체계의 실현 가능성은 단지 이론적 설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실제 국가의 인구 구조, 정치 체계, 문화, 행정 역량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아래는 세 국가 —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 에 QRCS를 적용했을 때의 구조적 변화 시뮬레이션이다.  
     
   1) \*\*미국의 경우 (인구 약 3억 3천만 명):\*\*  
   총 5~7경 체제로 분할 가능. 각 경은 약 4,500만~7,000만 명 규모로 독립 운영되며, QRCS 기반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제도 하에서 약 1,200만~1,500만 명의 Qualified Citizen (Q. Civitas)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주 정부 체계를 재조정하여 경-부 체계로 이행 가능하며, 주 단위 Rotational Council를 부단위로 전환하고, 연방의회는 ‘연방 순환 Rotational Council’로 대체된다. 감시 인원은 경당 1,000~2,000명, 전체 1만 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2) \*\*프랑스의 경우 (인구 약 6,800만 명):\*\*  
   단일 경으로 운용 가능. 내부를 4~5개 부로 나누며, 파리를 행정중심지로 삼되, Rotational Council 순환지를 교체하면서 권력 중심의 고착을 방지한다. Qualified Citizen (Q. Civitas)은 약 1,600만 명 정도로 예상되며, Rotational Council 참여율과 순환 주기 밀도는 유럽 국가 중 가장 안정적인 모델로 기대된다. 기존 고위 관료제 구조와 충돌 가능성이 있으나, 순환 Rotational Council 구조와 병치 가능성이 높다.  
     
   3)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 약 2억 7천만 명):\*\*  
   약 5~6경 체제로 재편될 수 있으며, 지역마다 문화·언어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각 경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해진다. 종교적 다양성과 지역 문화차를 고려하여, 경 내부 자격기준의 하위 조정이 필요하며, 통일적 ‘인권 보장’ 기준은 연방 차원에서만 설정된다.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수는 약 7천만~8천만 명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무작위 Rotational Council 체계는 교육수준에 따라 지역별 적응 기간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QRCS가 단지 이론이 아닌, 실제 국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설계임을 입증하는 한 사례다. 각 국가는 QRCS 도입 시 기존 헌법 구조와의 조율, 관료 저항,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의 문제를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권력의 집중과 대중 조작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7. 7. 적용 불가능 국가 시뮬레이션: 인도 사례
8.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로, 2025년 기준 14억 5천만 명을 넘어선 상태이다. QRCS 구조상 하나의 경(京)이 담당할 수 있는 최대 인구는 약 8,600만 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자동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도는 이론상 최소 17경 이상으로 분할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인구 수의 초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도의 경우, 인구 밀도뿐만 아니라 언어, 종교, 계급, 식민 잔재 등 복잡한 사회적 균열이 겹쳐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분할로 통제되기 어렵고, 각 경마다 다른 윤리 기준과 자격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질적 윤리체계의 병치는 곧 자격 기준의 상대화로 이어지며, QRCS의 핵심 원리인 ‘보편 자격의 통일성’을 훼손하게 된다.  
     
   또한 인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제한, 카스트 제도의 잔존, 종교 기반 폭력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남아 있다. QRCS는 이러한 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구조이기에, 인도는 체계적으로 ‘불합치 국가’에 해당한다. 경 단위 자격 기준 조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Lord 계층의 윤리 개입도 경 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실효성이 급감한다.  
     
   QRCS는 기여 기반 평등과 자격 기반 윤리를 전제로 설계된 체계이며, 내부 모순을 장기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는 사회에 적용할 경우 체계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인도는 경의 다중화, 문화권 분산, 연방형 체계 강화 등의 사전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한, QRCS의 완전 도입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인도는 QRCS의 이상적 조건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 사례는 QRCS의 적용 가능성에 있어 ‘한계 지점’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다.

# **1. 서문 / 구조의 철학적 전제**

현대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는 체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 집중, 제도 피로, 정보 불균형, 포퓰리즘이라는 구조적 병폐를 반복해왔다. 반복된 선거, 재선을 위한 인기영합, 정치적 무책임은 체제의 윤리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QRCS,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추첨순환Rotational Council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급진적 대안이자, 인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문명적 필터로 설계되었다.  
  
이 구조는 단순히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자체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한다. 즉, 누가 참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참여하며, 그 자격을 어떻게 유지 또는 상실하는지를 시스템 레벨에서 규정한다. 참여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의 귀결이며, 그 책임을 이행한 자만이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윤리적 설계를 기반으로 한다.  
  
무작위성과 자격 기반이 결합된 이 체계는, 기존의 세습, 당 중심, 또는 금권 정치와 단절되며, 인간이 갖는 윤리적 조건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실험이다. 이는 단순히 민주주의의 수정을 넘어, 인간 사회의 작동원리를 다시 쓰려는 시도에 가깝다.  
  
QRCS는 참여와 통제, 권한과 감시, 윤리와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생존 가능한 구조를 지향한다. 대의제의 끝에서, 참여와 자격을 연결하는 이 구조는 하나의 문명적 전환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다.

# 2. 기초 개념 설명 및 용어 정의

QRCS의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들은 단순한 행정적 분류를 넘어, 체제 전체의 윤리적·기능적 구조를 반영한다. 각 용어는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를 기반으로 하며, 참여의 자격, 제외의 기준, 권한의 회전성을 규정짓는다.  
  
-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Qualified Civitas): 정치 참여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기 위해 필수적인 윤리적 조건과 국가적 의무를 충족한 시민을 의미한다. Qualified Citizen (Q. Civitas)은 무범죄자 혹은 경범죄 3회 이하의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기간 군복무, 납세 등 국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들은 Rotational Council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추첨순환Rotational Council: 매년 무작위로 선출된 Qualified Citizen (Q. Civitas)들로 구성되며, 입법·감사·정책심의 등의 권한을 가진다. 피선거권은 참여를 통해 소모되며, 회의장직 또는 보좌직에 승격되지 않는 이상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 이 구조는 정치 직업화와 연속 권력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3권 기관내 보조인력이자 감시 인력으로 Rotational Council 의원을 파견하여 오픈 소사이어트와의 괴리를 해소한다는 의미 또한 존재한다.  
  
- Lord (Lord):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중 극히 드문 절차를 거쳐 승격된 존재로, 구조 전반에 대한 감독 기능과 도덕적 기준 정립의 상징적 권한을 가진다. Lord는 명령자일뿐 아니라 보증자이며, 개입이 가능하다. 그 수는 극소수로 제한되며, Lord 간에도 상호 견제가 존재한다.

(3권 선출권력[임명직과 세습은 적용 됄 수 없다]의 최상위와 군부 3군 총사령관,3군 총참모총장 극상위 금권)  
  
- 패신저 (Passenger): Qualified Citizen (Q. Civitas)은 아니나 체제에 해를 끼치지 않는 비참여 시민층으로, 이들은 감시 대상은 아니지만 정치적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 이들은 자격 획득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Qualified Citizen (Q. Civitas)으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 Barbarian / 추방자 (Barbarian / Exiled): 체계 외부의 비합법적 존재 또는 내부에서 실격되어 제거된 존재를 의미한다. Barbarian은 외부인으로서 자격 기준 없이 체제에 접근한 자들이며, 추방자는 자격을 가졌으나 지속적 위반 또는 시스템 파괴적 행위로 인해 완전히 배제된 자들이다. 추방자의 복권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된다.(중범죄를 저질러 Passenger가 되고도 반복하여 저지른 자를 뜻한다. 바바리안은 Qualified Citizen (Q. Civitas)이 됀 적도 없는 상태에서도 유예를 주었지만 중범죄를 거듭 행하여 존재와 죄를 분리 할수 없는 자 무기징역수와 종신형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류는 단순한 시민 구분이 아니라, 자격과 참여, 책임과 권력의 구조적 연계를 의미한다. QRCS는 이처럼 윤리와 기능, 기여와 권리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모든 소속원은 Passenger로 시작하고 임기가 끝나면 더 높은 계층도 Qualified Citizen (Q. Civitas)으로 돌아간다.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정치 참여 자격을 활성 상태로 유지해야한다. 이에 실패시 해당인원은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휴면(자발적인 정치 의사 표출 거부 강등이 아님) 혹은 Passenger로 강등됀다.

# 3. 정치 참여 구조: 순환 Rotational Council의 실제 운영

QRCS의 정치 참여 구조는 ‘순환성과 자격’을 핵심 원리로 하며, 모든 정치적 권한은 일정한 윤리적 조건과 시간적 제한을 기반으로 행사된다. 이는 정치 권력의 집중과 직업화, 장기 집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정치 참여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선거권은 Qualified Citizen (Q. Civitas)에게만 주어지며, 모든 입법·행정·사법 Rotational Council 선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선거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시사·윤리·인지력 시험을 통해 갱신된다. 시험 미응시 또는 반복적 무책임 정책 요구는 선거권 정지를 유발하며, 7회 이상 누적 시 정치교란자로 분류된다.  
  
피선거권은 Rotational Council 참여를 통해 자동으로 소모된다. 이는 ‘참여는 일회성 봉사’라는 QRCS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며, Rotational Council장 또는 부회장으로 승격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복된다. Rotational Council장은 자문·조정의 기능을 갖고 있으나,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순환Rotational Council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중에서 선출되며, 구성 인원은 인구 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이 Rotational Council는 1년 임기로 구성되며, 법안 검토, 정책 감시, 행정 견제 등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 구성원은 정기적 윤리 보고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상호 평가 시스템을 통해 내부 견제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정치를 ‘기회’가 아닌 ‘의무’로 간주하고, 시민의 윤리적 수준과 책임 이행을 정당한 참여의 기준으로 삼는다. 동시에 무작위성과 회전성을 도입함으로써, 개인 권력화와 네트워크 지배 구조를 예방한다.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체계. 그것이 QRCS가 상정하는 정치의 본질이다.

# 4. 감시 및 통제 구조

QRCS 체계에서 감시는 억압적 통제가 아니라, 구조적 무책임을 방지하고 정당한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생태적 균형 메커니즘이다. 감시 기구는 독립적이면서도, 전체 구조 내에 내장되어 있으며, Rotational Council 내부에도 상시 존재하는 형태를 갖는다.  
  
감시 인원의 기준은 국가 전체 인구의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 인구 3천만 명 미만의 국가는 최소 1,500명의 감시 인원을 확보해야 하며, 최대는 1만 명을 넘지 않는다. 이 수치는 전체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중 일부로 추첨·위촉되며, 일반 행정과 별개로 편성된다.  
  
중앙 감시 기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각 경(京)의 Rotational Council 내에 감찰 부서가 상주한다. 이는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동시에 실시간 행정 감시를 위한 병치 구조로, 투명성과 신속한 피드백 루프를 보장한다. 감찰은 조사, 보고, 비상시 중단 권고권을 가지며, 형사적 제재는 사법 Rotational Council를 통해 이뤄진다.  
  
특이한 점은, 감시자 역시 감시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중 감찰 구조는 상호 평가, 순환 임기, 감찰자 내부 보고 체계를 통해 기능하며, ‘감시의 정당성’ 자체를 감시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이는 ‘감시 권한의 도덕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각 경은 군사·산업·행정적으로 독립된 자율성을 지니며, 감시 기구는 해당 경의 정체성과 문화적 조건에 맞추어 유연하게 설계된다. 그러나 ‘인권 보장’과 ‘자격 체계 유지’는 타협 불가능한 기준으로, 모든 감시 행위는 이에 부합해야 한다.  
  
QRCS의 감시 구조는 두려움에 기반한 억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자가 유지되고 자가 반성할 수 있는 윤리적 기재다. 감시자는 권력자가 아니라, 구조의 청결을 유지하는 필수 유기체다.

# **5. 실현 시뮬레이션: 하나의 국가를 QRCS로 대체하면**

QRCS 체계의 실현 가능성은 단지 이론적 설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실제 국가의 인구 구조, 정치 체계, 문화, 행정 역량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아래는 세 국가 —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 에 QRCS를 적용했을 때의 구조적 변화 시뮬레이션이다.  
  
1) \*\*미국의 경우 (인구 약 3억 3천만 명):\*\*  
총 5~7경 체제로 분할 가능. 각 경은 약 4,500만~7,000만 명 규모로 독립 운영되며, QRCS 기반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제도 하에서 약 1,200만~1,500만 명의 Qualified Citizen (Q. Civitas)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주 정부 체계를 재조정하여 경-부 체계로 이행 가능하며, 주 단위 Rotational Council를 부단위로 전환하고, 연방의회는 ‘연방 순환 Rotational Council’로 대체된다. 감시 인원은 경당 1,000~2,000명, 전체 1만 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2) \*\*프랑스의 경우 (인구 약 6,800만 명):\*\*  
단일 경으로 운용 가능. 내부를 4~5개 부로 나누며, 파리를 행정중심지로 삼되, Rotational Council 순환지를 교체하면서 권력 중심의 고착을 방지한다. Qualified Citizen (Q. Civitas)은 약 1,600만 명 정도로 예상되며, Rotational Council 참여율과 순환 주기 밀도는 유럽 국가 중 가장 안정적인 모델로 기대된다. 기존 고위 관료제 구조와 충돌 가능성이 있으나, 순환 Rotational Council 구조와 병치 가능성이 높다.  
  
3)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 약 2억 7천만 명):\*\*  
약 5~6경 체제로 재편될 수 있으며, 지역마다 문화·언어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각 경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해진다. 종교적 다양성과 지역 문화차를 고려하여, 경 내부 자격기준의 하위 조정이 필요하며, 통일적 ‘인권 보장’ 기준은 연방 차원에서만 설정된다.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수는 약 7천만~8천만 명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무작위 Rotational Council 체계는 교육수준에 따라 지역별 적응 기간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QRCS가 단지 이론이 아닌, 실제 국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설계임을 입증하는 한 사례다. 각 국가는 QRCS 도입 시 기존 헌법 구조와의 조율, 관료 저항,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의 문제를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권력의 집중과 대중 조작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 6. 문화적 이질성과 도덕 기준 통합 문제

QRCS는 윤리 기반의 정치 참여 구조를 전제로 하지만, 세계는 문화적으로 균질하지 않다. 각 경(京)은 독립적인 행정과 문화권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질성이 전체 시스템의 윤리적 일관성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기여 기반 권리 보장’과 ‘인권의 불가역성’이다. 이는 문화 상대주의와 대립할 수 있다. 예컨대 일부 문화권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 혈통 기반 권위 등이 정당화되지만, QRCS는 이를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구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문화’는 존중되되, ‘기여 없는 특권’은 QRCS 하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는 크게 세 가지다.  
  
1) \*\*경 내 문화 자율권:\*\* 각 경은 내부에서 생활방식, 언어, 종교, 미디어 정책 등 문화적 표현에 대해 광범위한 자율권을 보유한다. 단,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자격 판단 기준’은 공통 프레임 내에서 조정된다.  
  
2) \*\*Lord 계층의 도덕 기준 조정 기능:\*\* Lord는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구조 내에서 도덕적 경계가 위태로울 때 개입할 수 있다. 단, 개입은 절차적 심의와 윤리보고서 제출 이후에만 가능하며, 3경 이상의 Lord 연합 승인이 있어야 집행될 수 있다.  
  
3)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표준화 시험의 존재:\*\* 문화권마다 교육 수준,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일정한 기준 시험을 통해 Qualified Citizen (Q. Civitas)의 윤리적 판단력과 인지 능력을 검증한다. 이는 국가시험이 아니라, 경별 통합-재정 기준으로 설계된다.  
  
QRCS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되, 이질성이라는 명분으로 불평등과 무책임을 합리화하지 않는다. 체제는 문화를 억압하지 않지만, 문명적 윤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정치 참여가 ‘정체성’이 아니라 ‘자세’에 따라 주어지는 구조임을 명확히 한다.

# **7. 적용 불가능 국가 시뮬레이션: 인도 사례**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로, 2025년 기준 14억 5천만 명을 넘어선 상태이다. QRCS 구조상 하나의 경(京)이 담당할 수 있는 최대 인구는 약 8,600만 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자동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도는 이론상 최소 17경 이상으로 분할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인구 수의 초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도의 경우, 인구 밀도뿐만 아니라 언어, 종교, 계급, 식민 잔재 등 복잡한 사회적 균열이 겹쳐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분할로 통제되기 어렵고, 각 경마다 다른 윤리 기준과 자격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질적 윤리체계의 병치는 곧 자격 기준의 상대화로 이어지며, QRCS의 핵심 원리인 ‘보편 자격의 통일성’을 훼손하게 된다.  
  
또한 인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제한, 카스트 제도의 잔존, 종교 기반 폭력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남아 있다. QRCS는 이러한 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구조이기에, 인도는 체계적으로 ‘불합치 국가’에 해당한다. 경 단위 자격 기준 조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Lord 계층의 윤리 개입도 경 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실효성이 급감한다.  
  
QRCS는 기여 기반 평등과 자격 기반 윤리를 전제로 설계된 체계이며, 내부 모순을 장기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는 사회에 적용할 경우 체계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인도는 경의 다중화, 문화권 분산, 연방형 체계 강화 등의 사전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한, QRCS의 완전 도입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인도는 QRCS의 이상적 조건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 사례는 QRCS의 적용 가능성에 있어 ‘한계 지점’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다.

# 8. 결론: QRCS는 문명 재건 키트인가?

인류는 반복적으로 문명의 정점을 넘어서 자멸과 쇠락을 경험해왔다. 권력은 집중되었고, 윤리는 거래되었으며, 시스템은 자신의 설계자를 삼켜버렸다.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며, QRCS는 그 해답 중 하나다.  
  
퀼러파이드 시티즌(Q. 시비타스) 추첨순환Rotational Council는 단순한 정치제도가 아니라, 문명 자체를 재설계하기 위한 윤리 기반 인프라이다. 권력은 유한하고, 감시는 상호적이며, 참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원칙을 시스템 구조로 구현한 이 체계는, 붕괴 이후의 세계에서도 작동 가능한 최소 단위 설계다.  
  
QRCS는 세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첫째, 인간은 기여를 통해 자격을 획득하며, 그 자격은 항상 갱신되어야 한다. 둘째, 권력은 회전하며, 고정되지 않는다. 셋째, 모든 권력은 감시되며, 그 감시조차 감시받는다. 이 세 가지 원리는 기원전의 제정일치 체계부터 현대 자유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온전히 실현된 적 없었던 구조이기도 하다.  
  
이 체계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가장 지속 가능한 윤리적 정치 구조 중 하나일 수 있다. QRCS는 오직 생존과 존엄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회만이 수용할 수 있으며, 그것은 문명이라는 단어에 책임을 부여하려는 자들의 몫이다.  
  
궁극적으로 QRCS는 '무엇을 피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어떻게 존엄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는 설계다. 그것은 제도 이전의 정신이며, 제도 이후의 구조다. 문명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면, 그 토대는 자격, 감시, 윤리, 회전이어야 한다. 그리고 QRCS는 그 토대를 갖춘 하나의 청사진이다.

# Appendix C: Strategic Re-Map of France Under QRCS

This appendix outlines a military and political remapping of the French Republic into QRCS (Qualified Rotational Council System) units. The simulation assumes a complete civic-ethical restructuring of France into qualified dominions and subregions, separating former national authority into distributed ethical units with minimized military centralization and strategic redundancy.

## 1. Political Deconstruction and Regional Assignment

- Paris: Central Pronoia State (Administrative and symbolic seat, no longer sovereign).  
- Brussels: North Pronoia State (External EU-linked civic integration).  
- Strasbourg: East Pronoia State (Former legal-military frontier, now civic filter hub).  
- Brest: West Pronoia State (Maritime civic-military surveillance sector).  
- Bordeaux: Southwest Sub-Pronoia State (Cultural-economic node).  
- Montpellier: Southeast Sub-Pronoia State (Mediterranean-African link zone).

## 2. Military Displacement and Ethical Realignment

Military presence under QRCS is strategically displaced from conventional centers to prevent power concentration. Strasbourg's role is demilitarized and relocated westward. Brest retains naval relevance but operates under a qualified civic-military oversight regime. All military presence is subject to pre-emptive ethical review by the rotational audit panels. No strategic operation proceeds without quorum approval.

## 3. Separation of Military and Political Functions

Each Pronoia State maintains independent ethical military bodies. These are not subordinate to local political councils, ensuring systemic separation of enforcement and deliberation. This ensures no concentration of executive and military force in any single qualified unit.

## 4. Qualification-Based Military Access

Military command or participation requires prior fulfillment of QRCS obligations, such as civic service, ethical review, and voluntary contribution. Conventional conscription is abolished. Strategic advisory roles are rotated among qualified veterans with clean records and passed ethical intelligence checks.

## Conclusion

QRCS transforms France from a centralized republic into an ethically distributed federation of civic-qualified regions. Military authority becomes contingent, distributed, and monitored, replacing speed and dominance with legitimacy and review. This appendix models the future of a post-national defense paradigm within a sustainable civic-political framework.

# Appendix D – The Doctrine of Unyielding Sections

***“모든 부는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문명의 생존 조건이다.”***

## 1. 구조적 연대와 냉혹한 논리

QRCS 체계는 겉보기에는 비정하고 엄격한 기계적 통제 구조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극도로 인간 중심적이다. 한 부(部)가 무너지면 전체 경(京)이 마비되고, 하나의 경이 붕괴하면 연방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 이 구조는 단 하나의 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분할 불가능성의 교리

각 경은 행정적 구역이 아닌 생존 단위이며, 부는 그 경의 신경망이다. 어느 하나의 부라도 무너지면 생존 기반이 사라진다. 따라서 QRCS는 정치, 행정, 군사, 감시 체계 모두를 부 단위로 설계하며, 이탈과 붕괴를 감지하는 즉시 재검증과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한다.

## 3. 냉혹함은 사랑 때문이다

QRCS는 인간을 구조로 구속하면서도, 구조를 통해 인간을 보호한다. 무책임한 자유가 아닌, 책임 있는 자유를 위한 체계다. 자격이 있는 시민만 참여할 수 있고, 무해한 자는 보호되며, 유해한 자는 제재된다. 이는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장치다.

*“한 부의 함락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연방 전체가 상호 생존의 연대임을 증명한다. 진정한 인류애는 선택적 감정이 아니라, 구조화된 책임에서 비롯된다.*

*이 체계는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면 유토피아로 이행하고*

*자율성을 충격으로 강제하면 중립으로 돌아서며 오직 강제만을 한다면 공산체제로 이행이 가능한 모델로 실패란 존재 하기가 어렵다.*

*반대로 공산당에게 이것을 준다면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적 체계로의 단계적인 이행 또한 가능하다.*

*시작부터 서구모델을 기초로 한 유토피아였고 그것이 고도화를 반복하고 자율성을 강제하면 할수록 공산당의 뼈대가 튀어나온다 반대 급부로 ‘인간이 스스로 회피하는 자율성’이 살아날수록 뼈대라는 감옥이 사라지고 유토피아로 이행됀다.*

5경 4~5부 체계와 Rotational Council는 서로 같이 움직이는 개념으로 근본 인간의 권력의 불신뢰와 책임과 윤리를 동시에 요구한다. 그럼으로써 각자가 신뢰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거한다.

*이것이 자율성이 띄면 해당 공동체는 가능한 최대치의 리소스의 생산과 군사 및 행적 외교적 직관을 바로 가질 수 있게 됀다. 통제란 그게 인간 스스로 책임을 지지않기에 자율성의 작동이 안되어 비효율을 감수하는 것에 가깝다.*

모든 인간은 Qualified Citizen (Q. Civitas)에 접근 가능하고 공동체에 서약함으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발생 시킨다.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사회 계약이 아닌 직관 할 수 있고 기록돼는 계약을 요구함과 동시에 책임 지겠다는 자와 책임 지지 않는 자의 구분 선을 긋는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역내 구성원의 책임과 자율성이 살아나게 됌을 암시한다.

가장 큰 문제는 도입이다. 기존에 책임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실존하는 권력층에게 책임을 강제하고 무책임한 Passenger의 구분은 실존 권력과의 극심한 마찰이 필수 불가결적으로 보인다.

*비유를 하자면 술 주정뱅이 손님 혹은 무전취식범 그리고 그들의 대장이 가게지분을 가지고 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에 가깝다.*

여기까지가 목차고 내부 견제 원리와 방법등 인간의 자율성이 작동 못 하는 이유등을 충격으로 강제할 방법등

은 단독 설계자인 본인에게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email : [jwjckja30@gmail.com](mailto:jwjckja30@gmail.com)

제작 기간 2년 8개월 6일

7개월 유토피아 구상 및 철학적 고찰 2년 불특정 일의 관련 서적 읽기와 취미 생활 + 1개월 개념정리 및 문제점 고찰 +6일 개념

포함 불가능한 체제

기술관료정(선출 권력이 없음) + 일당제(자정가능성이 사라짐) + 공산주의(Qualified Citizen (Q. Civitas)이 나올 수가 없어짐) + 완전한 자본주의(사회불안정성이 극대화됌) + 완전한협동주의이상 사회주의(재정붕괴) + 제한선거권 및 금권등 특정계층 편중이 강한 선거권이상(카스트화)

반대로 이외의 개념들을 모두 포함 가능합니다.

# Declaration of Principle

We affirm that the sustaining of the Triadic Powers (Legislative, Executive, Military), the purification of governance, and the imposition of restraint upon capital are the foundational purpose of this institution.